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5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480)	봉헌 (216)	성체 (156)	파견 (6)
---------	----------	----------	----------	--------

제1독서 | 2마카 7,1-2.9-14

화답송 | 시편 17(16),1.4다과 5-6.8과 15(© 15년 참조)

-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 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
- 계명의 길 곳곳이 걷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
-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

제2독서 | 2테살 2,16-3,5

복음환호송 | 묵시 1,5.6 참조

- ◎ 알렐루야.
- 죽은 이들의 만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아멘. ◎

복음 | 루카 20,27-38(또는 20,27.34-38)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17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11/24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1	유 요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8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45	\$40	\$6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1/2	유 요한/유 마리아	12/7	김 마론/ 김 헬레나
11/9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2/1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16	홍 마르코/ 홍 아녜스	12/21	손 아놀드/ 손 쟈마
11/23	김 요아킴/ 고 안나	12/2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11/30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1/4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12 월 5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 시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임원회의는 12 월 1 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 공동체 모임: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매달 둘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미사후 소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모임은 12 월 8 일 입니다.

가을 축제 Nov 3rd 2019

지난 주 주일 11 월 3 일 가을 축제에 참여와 봉사를 해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노래하게 하소서!

-나혜선 요셉피나 | 성가가수, 금속공예가-

“안녕하세요, 성가 가수 나혜선 요셉피나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성가 가수임을 소개할 수 있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1999년 제1회 cpbc 창작생활성가제 본선 입상을 하면서 성가계에 입문하고 성가와 함께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데뷔하여 지금까지 찬양만을 이어온 존경스러운 동료들도 있지만, 그들에 비해 저는 치열하게 이 안에 머물며 찬양만을 이어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비서, 금속공예가, 방송 진행자, 공연기획자, 감성코칭 지도사, 퍼머넌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성가 가수.
지난 20년 동안 지나간, 또는 여전히 붙어있는 제 이름 앞의 수식어들이입니다. 그중에서도 ‘성가 가수’라는 단어 안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성가를 놓지 못했던 제 신앙의 성장기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하루는 길에서 딸아이가 엉뚱하게도 “나는 성가 가수 나혜선 요셉피나의 딸이다!”라며 연이어 소리치길래 당황하여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울아, 엄마가 성가 가수인 게 좋아? 엄마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하잖아.” “응, 난 엄마가 성가 가수인 게 좋아, 그게 내 엄마여서 더 좋아! 하느님이 듣기 좋으니까 성가 가수 시켜준 거 아냐?” 아이의 말은 지난 삶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공연 스케줄과 겹쳐 공예공방 문을 일찍 닫아야 할 때의 답답함, 밤샘 녹음을 마치고 일을 나갈 때의 고단함,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노래하는 것 같던 외로움, 끝이 보이지 않

는 길을 걸어가는 두려움,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의 어려움 등 극복해야 할 상황들이 점차 늘어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치가 쌓여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겐 살아내야 했던 삶이었고, 그렇게라도 저를 불러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라 여기며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아이의 단순한 대답은 이런 삶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이리저리 선을 긋고 재단하던 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답변이 싫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노래하는 삶을, 제가 단순하게 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주님! 그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꺼이 응답하겠습니다. 노래할 때, 제 안에 오셔서 이를 기뻐하며 즐기시는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저의 찬양이 더 이상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찬양을 멈춰야 함을 압니다. 저의 노래가, 저의 이름이, 저의 모습이 기억되기보다 오래전 누구의 찬양인지도 모르고 따라 부르며 제가 위로받고 회복했던 것처럼 저의 찬양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찬양이 당신을 닮아, 소멸해가는 누군가의 마음에 생명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 안에 머무소서. 그리하여 당신으로 인해 제가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